

중국어 동태조사 ‘着’의 한국어 표현에 대하여

— ‘고 있/ 어 있’을 중심으로 —

최 봉 량*

<目次>

I. 서론	III. ‘着’의 선행성분에 따른 한국어 표현
II. ‘着’의 의미 특성에 따른 한국어 표현	IV. 결론

I. 서론

중국어에서 상(相)적 의미를 가지는 동태조사 ‘着’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고 있’과 ‘어 있’에 대응된다. 본고에서는 ‘着’의 의미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고 있/ 어 있’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¹⁾ 또한 모국어의 전이(transfer)²⁾와의 상관관계를 통한 오류의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대조언어학적 측면에서 오류의 해결 방법을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초빙교수

- 1) 상(相, aspect)은 중국어에서 ‘態’로 표현되기도 하고, 한 시제 영역에서 동작 양상을 드러내는 문법 요소이다.
- 2) 전이(transfer)는 학습자의 모국어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일컫는다. 긍정적인 전이를 ‘유용’이라 하고, 부정적인 전이를 ‘간섭’이라 한다.

- (1) a. 雨不停地下着。
 b.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b' 비가 끊임없이 내리어 있다.
- (2) a. 別老站着。
 b. 계속 서 있지 마세요.
 *b' 계속 서고 있지 마세요.

예(1)a,(2)a ‘着’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예(1)b’,(2)b’에서 모두 비문이 된다. 중국어 동태조사 ‘着’는 앞에 오는 동사나 형용사의 특성에 따라 ‘고 있’이나 ‘어 있’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고 있’은 연결어미 ‘고’와 보조동사 ‘있(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형태이며, ‘어 있’은 연결어미 ‘아/어/여’와 보조동사 ‘있(다)’가 결합한 보조용언으로 상(相)적인 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나타낸다. 중국어는 동사나 형용사의 형태 변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어순과 허사가 매우 중요한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상(相)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동사 뒤에 허화(虛化)된 조사를 사용한다.³⁾ 그러나 한국어는 본용언의 활용형에 보조 동사를 결합시킨 통사적 구성으로 상(相)적 양상이 표현되며, 대표적인 형태로 ‘고 있’와 ‘어 있’이 있다.⁴⁾

중국어에서 시제존재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상(相)은 존재하며 상(相)의 표지로서 일반적으로 동태조사 ‘了, 着, 過’가 있다고 본다. 朱德熙(1982), 胡裕樹(1998)는 ‘着’를 ‘進行態(進行體)’라 하였고, 王力(1945), 趙元任(2002)은 ‘動作進行體’라 하였다. 王力은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다른 외국어와의 비교 교육이다”라고 했다. 본고는 중국어 동태조사 ‘着’의 한국어 표현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중국어 모어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龔千炎(1995)은 ‘허화(虛化)는 동사, 형용사 등 실사가 허사로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라 했다.

4) 한국어에서 동작상이라고도 하며, 동작상은 동사의 활용형에 기대어 동작의 여러가지 양상을 표시하는 형태, 의미 범주이다. 여기서 ‘양상’이란 완료, 진행, 예정과 같은 동작의 모습을 의미 한다.

II. ‘着’의 의미 특성에 따른 한국어 표현

1. ‘着’의 의미 특성과 ‘고 있/ 어 있’

呂叔湘(1984: 594~595)은 ‘着’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오는 동태조사로서, 선행성분인 동사, 형용사와 ‘着’ 사이에는 어떤 성분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着’의 여러 가지 의미 특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오고, 동사 앞에 부사 ‘正在, 在, 正’을 쓸 수 있으며, 어말에 ‘呢’도 쓸 수 있다.

(3) 他們正開着會呢。(그들은 회의를 열고 있어요.)

(4) 一場熱烈的討論正在進行着。(열렬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이고, 동사, 형용사 앞에 부사 ‘正在, 在, 正’을 쓸 수 없다.

(5) 門開着呢。(문이 열려 있어요.)

(6) 夜深了, 屋裏的燈卻還亮着。

(밤이 깊었는데 방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다.)

(3) ‘着’는 존재문에 쓰여 어떤 태도나 모습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때 ‘動+着’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작이 발생한 상태를 더 많이 나타낸다.

① 名(處所)+動+着+名(施事)

(7) 門口圍着一群人。(문 입구에서 사람들에 둘러 싸여져 있다.)

- (8) 路旁長椅子上坐着一對老年夫婦。
(길옆 긴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계신다.)

② 名(處所)+動+着+名(受事)

- (9) 手上拿着一本漢語詞典。(중국어 사전 한권이 손에 들려져 있다.)
(10) 水渠兩旁栽着高高的百楊樹。
(수로 양변에 키가 큰 백양나무가 심어져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着’에 대응되는 한국어는 ‘고 있’이나 ‘어 있’으로 표현된다.

백봉자(2002: 393~396)는 ‘고 있’은 동작동사와 많이 쓰이며, 일반적으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므로 화자가 특별히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고 싶을 때가 아니고서는 ‘고 있’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어 있’은 생산성이 매우 높고 동작동사와 많이 쓰이며 [완료 지속]의 의미로 쓰인다. 또한 예 (5)(6)의 ‘열려 있다/켜져 있다’와 같이 동작동사의 피동형태와도 많이 쓰인다. ‘고 있’과 ‘어 있’은 의미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고 있’은 단순한 동작의 진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나 동작의 결과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으며,⁵⁾ ‘어 있’은 동작이 완료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고 있’이 동작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표현할 때, 예를 들면 “그녀는 예쁜 옷을 입고 있다”는 ‘어 있’과 비슷한 의미지만 “그녀는 예쁜 옷을 입어 있다”를 쓰면 비문이 된다. 즉 ‘고 있’은 동작을 한 후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어 있’은 동작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자는 선행동작의 단절이고 후자는 동작상태의 지속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5) ① 친구한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어요.(我正在寫寄給朋友的信。) ② 김 선생은 요사이 책을 쓰고 있다.(金老師最近在寫書。) ③ 그는 지금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다.(他正在乘坐飛往韓國的航班。)

2. ‘着’의 의미특성에 따른 한국어 표현

‘着’가 나타내는 가장 큰 의미 특성은 지속성이라 할 수 있으며, 크게 [동작의 지속]과 [상태의 지속]으로 나눌 수 있다.⁶⁾ 지속성이란 사건과정의 지속성이며, ‘着’는 문장에서 표현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11) 你在這兒等着, 可不能走開。(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가면 안돼.)

(12) 床上躺着一個人。(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있다.)

예(11) ‘等着’는 한국어 ‘고 있’과 대응되고, [동작의 지속], 현재시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예(12) ‘躺着’는 ‘어 있’으로 대응되고, [상태의 지속], 과거시제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⁷⁾

(1) [동작의 지속]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着’는 앞에 오는 단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한국어의 대응도 달라진다. 지속성이 있는 동작동사가 있으면, 동사 앞에 ‘正在, 在, 正’ 등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오거나 문장 끝에 어기조사 ‘呢’가 와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 이때 한국어에서는 ‘고 있’으로 표현된다.

(13) 孩子們正等着我們呢。(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6) 陸儉明(1999)은 ‘着’의 문법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하였다. 동작행위의 지속을 ‘동태(動態)의 지속’라 했고, 상태의 지속을 ‘정태(靜態)의 지속’이라 했다.

7) 전통문법에서 한국어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3분법으로 나누었으나, 안동환(1981), 서정수(2006) 등은 ‘우리말 시제는 과거시제와 비과거 2분법 체계이며 과거시제 형태는 유표(mark)형태 ‘있/있었’ 등이고, 비과거(non-past)시제 형태는 ‘무표(unmark)형태’라고 했다.

예(13)은 [동작의 지속]을 나타낼 때에는 ‘어 있’으로 사용할 경우 비문이 되기 때문에 ‘고 있’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어에서 현재는 동작의 진행상을 나타내므로 화자가 특별히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고 싶지 않으면 ‘고 있’을 쓸 수 없다.

(14) 구두를 신고 있다. / 안경을 쓰고 있다. / 반지를 끼고 있다.

예(14)은 ‘어 있’과 의미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어 있’을 쓸 경우 비문이 된다, 또한 ‘고 있’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에 쓰인다. 중국어에서 동작 중인 지속을 표시할 때는 ‘下(내리다), 說(말하다), 等(기다리다)’ 등과 같은 ‘지속성’을 가진 행위동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은 ‘는 중이다’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과거완료를 나타내는 ‘어 있’은 ‘았다, 서다, 뜨다’ 등과 같은 ‘완료성’을 의미하는 동사가 ‘었’을 취하면 동작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눈에 나타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2) [상태의 지속]

‘着’가 순간동사나 동작동사 뒤에 쓰여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면 한국어에서는 ‘어 있’으로 대응되고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동작의 지속]처럼 앞에 ‘正在, 在, 正’ 등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오거나 문장 끝에 ‘呢’가 와야 하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15) 領子上繡着兩朵花。(옷 칼라에 꽃 두 송이가 수 놓여져 있다.)

(16) 夜深了, 屋裏的燈卻還亮着。

(밤이 깊었는데 방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다.)

‘着’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때에는 한국어에서 ‘어 있’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고 ‘站着(서 있다), 貼着(붙어 있다), 活着(살아 있다), 留着(남아

있다’ 등 동작동사에 쓰인다. 또한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放着(놓여 있다), 掛着(걸려져 있다), 關着(닫혀 있다), 開着(열려 있다), 滅着(꺼져 있다), 寫着(적혀 있다), 摻和着(섞여 있다), 掉着(떨어져 있다), 淋着(젖어 있다)’ 등과 같은 피동형태의 동작동사와도 자주 쓰인다. 그 의미는 동작이 완료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고, 화자가 특별히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는 ‘고 있’을 쓸 수 없다.

- (17) a. 她靠窗戶坐着。
 b. 그녀는 창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
 *b' 그녀는 창문 가까이에 앉고 있다.
- (18) a. 牆上掛着一幅畫兒。⁸⁾
 b. 벽에 그림 한 폭이 걸려 있다.
 *b' 벽에 그림 한 폭이 걸고 있다.

예(17)의 한국어 표현은 모두 ‘어 있’으로 대응되며, 어떤 행위동작에 의해 계속되는 사람이나 동물의 자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종류의 동사는 ‘坐(앉다), 站(서다), 躺(눕다), 跪(꿇다)’ 등이 있다. 예(18)은 ‘장소+지속성동사+着’인 경우가 많다. 위 예들은 어떤 행위동작 아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동적]인 동사에는 모두 ‘고 있’을 쓸 수 있지만 [+동적]이라 하더라도 복합적인 동작의 국면의 전개를 나타내지 않는 동사들에는 ‘어 있’을 쓸 수 없다. 한국어와 중국어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에서 미완료상 특히 진행상의 형식적 표현과 다양한 처격의 부사구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진행상의 형식적 표현과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 장소에 관련된 표현 사이의 유사성이다. 대다수의 언어들이 처격 구조나 그로부터 파생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소와 상(相) 사이의 관

8) (18) 他在牆上掛着一幅畫兒。(그는 벽에 그림 한 폭을 걸고 있다.) 예(18)는 예(18)과 다르게 ‘어 있’을 쓰면 비문이 된다. 馬慶株(1981)는 持續性動詞에는 強持續性動詞와 弱持續性動詞가 있으며, ‘看/掛’ 등의 동사는 弱持續性動詞로서 중의적 동사라고 했다.

련된 증거는 어떤 일을 행하는 과정보다는 상태성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⁹⁾

Ⅲ. ‘着’의 선행성분에 따른 한국어 표현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着’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着’를 붙일 수 없는 것을 ‘결속성 동사’라 하고, ‘着’를 붙일 수 있는 동사를 ‘지속성 동사’라고도 한다. 지속성이란 사건과정의 지속성이며, ‘着’는 문장에서 표현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着’와 ‘고 있/ 어 있’은 [상태의 지속]과 [동작의 지속]으로 지속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시간외적인 것을 보는 시제와 다르게 상(相)은 상황의 시간내적인 것으로서 단순히 용언의 활용에 의해 나타내는 양상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휘적 의미에 따른 동적인 과정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므로 ‘着’의 선행성분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 한국어 ‘고 있’이나 ‘어 있’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에 먼저 ‘着’의 선행성분이 동사일 때 한국어 표현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선행성분이 동사인 경우

1) 상(相)적 양상에 따른 분류

언어에 따라 상(相)은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누어지며, 미완료상에는 진행상, 반복상, 예정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어간에 ‘고 있’이 붙으면 진행상을, ‘어 있’이 붙으면 완료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두 형태는 같은 완료지속의 의

9) Bernard Comrie, 신수송 역, 《동사 상의 이해》(한신 문화사, 1998), 145쪽 참조.

미를 가지며 동사의 형태나 어휘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같은 동작상이라 할지라도 선행하는 동사의 어휘적 자질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는가 하면 형태가 달라도 그 분포가 상보적이면 같은 기능에 넣을 수 있다.¹⁰⁾

일반적으로 상(相)을 해석 방법으로 [±동태성], [±완료성], [±순간성], [±접근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상(相)적 양상은 순간동사, 심리동사, 행위동사 등 각각의 동사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대응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고 있’과 ‘어 있’은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도 그 대응관계가 달라지므로 자동사나 타동사가 왔을 때의 한국어 표현도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① 순간동사

순간동사는 [동태성, 완료성, 순간성]인 상(相)적 자질을 가지며, 아주 짧은 순간적인 사건의 반복이나 일련의 순간적 사건으로서 시간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19) 他腦子裏不停的閃動着她的身影。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계속 맴돌고 있다.)

(20) 我大口地呼吸着這清新的空氣。

(나는 이 신선한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고 있다.)

陳平(1998)은 예(19),(20)는 사건 본래의 연속적인 시간의 길고 짧음(閃動身影, 呼吸空氣)은 다르지만, 이는 ‘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지속적인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 순간동사는 비지속적인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상에서 폐쇄성을 나타내고, 시작과 끝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핍되어 있어 ‘單變(simple change)’의 특징

10) 고영근(2007)은 동사류를 상태동사, 과정동사, 완성동사, 순간동사, 심리동사로 분류하여 상(相)적인 양상을 분류하기도 하였다.

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사실 ‘着’는 시간상의 광범위한 연속성이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着’와 의미적으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순간성동사와 ‘着’는 문장에서 함께 나타날 수 없다. 순간동사에는 도착하다(到), 떠나다(離開), 죽다(死), 때리다(打), 꼬집다(捏), (공)을 차다(踢), 끄덕거리다(點頭), 깜빡이다(眨眼), 기침하다(咳嗽), 쏘다(射/放), 두드리다(敲), 딸꾹질하다(打嗝兒) 등이 있다.

(21) 列車正在進站。 → *列車正在進着站。

기차가 지금 도착하고 있다. → *기차가 지금 도착하여 있다.

(22) 車正在離開。 → *車正在離開着。

차가 지금 떠나고 있다. → *차가 지금 떠나어 있다.

‘고 있’은 순간동사 곧 [-상태, -지속]의 용언과 어울려서는 진행상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예(21)(22)경우 [-상태, -지속]으로 진행상이라 볼 수 있다. (21)의 ‘도착하다’와 (22)의 ‘떠나다’는 [-지속] 용언이다. 그러나 진행상의 의미가 느껴진다. 사실 그 동작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식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후해서 그 동작과 관련된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¹¹⁾ 이런 예는 이동성을 나타내는 용언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영어, 일본어의 경우도 비슷한 예가 있다. 위 예에서 살펴본 본바와 같이 중국어 순간동사는 ‘着’를 쓸 수 없으며, 한국어에서 ‘고 있’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어 있’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② 심리동사

심리동사는 내면적인 시간이 존재하는 심적인 태도로서 발화자만이 지

11) 순간성이나 지속성 등은 모두 동사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 자질이며, 龔千炎(1995)은 순간성은 행위동작의 시작점과 종결점간의 거리가 아주 짧아서 거의 겹치며, 따라서 지속성을 가지기 힘들나 실현성을 드러내기는 쉽다고 했다.

각하고 인식하는 상태나 행위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동태성, 완료성] 인 상(相) 자질로 상태동사에 포함시키기도 하였으나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심리동사를 따로 인정하고 있다. 심리동사는 지각동사, 인식동사, 감각동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동사는 대부분 ‘고 이’과 대응되며, ‘어 있’과는 잘 대응되지 않는다. 심리동사에는 看(보다), 聽(듣다), 嘗(맛보다), 信(믿다), 愛(사랑하다), 希望(희망하다), 計劃(계획하다), 記(기억하다), 同情(동정하다), 想(생각하다), 疼(아파하다), 등이 있다.

- (23) 他一直忘了這件事。 → *他一直忘着這件事。
그는 그 일을 계속 잊고 있다. → *그는 그 일을 계속 잊어 있다.
- (24) 我相信你。 → *我相信着你。
나는 당신을 믿고 있다. → *나는 당신을 믿어 있다.

③ 행위동사

행위동사는 [동태성]은 가지나, [순간성, 완료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연속적인 움직임이 있기에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행위자가 있다. 이러한 동사에는 만나다(見), 부르다(叫), 주다(給), 걷다(走), 읽다(讀), 일하다(幹), 마시다(喝), 먹다(吃), 놀다(玩), 돕다(幫阻), 쓰다(寫), 오다(來), 피다(開), 달리다(跑) 등이 있다,

- (25) 她正在見個朋友。 → *她正在見着朋友。
그녀는 친구를 만나고 있다. → *그녀는 친구를 만나어 있다.
- (26) 她畢業於北京大學。 → *她畢業着北京大學。
그녀는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있었다.
→ *그녀는 북경대학을 졸업하여 있었다.

戴耀晶(1997)은 見(만나다), 畢業(졸업하다), 應該(해야 한다), 是(이다), 屬於(속하다), 感覺(느끼다), 懂(알다), 出發(출발하다), 死(죽다), 到達(도착한다), 出生(출생하다) 등과 같은 능원동사, 속성동사, 심리동사, 행위동

사는 ‘着’를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의 순간동사, 심리동사, 행위동사에는 ‘着’를 쓸 수 없으며, 한국어는 ‘고 있’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어 있’으로 표현 될 수 없다. 예(26)의 ‘졸업하다’는 행위동사이지만 순간적인 의미가 많아 진행상을 이루지 못해 “그녀는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있다”로 쓸 경우 비문이 되므로 완료상을 나타낸 “그녀는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있었다.”, “그녀는 북경대학을 졸업했다.”로 표현해야 비문이 되지 않는다.

2) 목적어에 따른 동사 분류

① 타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는 打(때리다), 說(말하다), 找(찾다), 喝(마시다), 讀(읽다), 拉(끌다, 당기다), 壓(누르다) 등이 있다. ‘고 있’의 의미는 ‘동작의 진행, 지속적인 행위,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낼 경우 동사의 성격과 문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 있’과 ‘어 있’을 비교해 보면 동작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아래와 같다.

- (27) a. 她穿着漂亮的衣服。
 b. 그녀는 예쁜 옷을 입고 있다.
 *b' 그녀는 예쁜 옷을 입어 있다.
- (28) a. 現在正在坐着飛機。
 b. 지금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다.
 *b' 지금 중국행 비행기를 타어 있다.

예(27),(28)은 ‘어 있’과 그 의미가 같은 것 같지만, ‘고 있’은 동작을 한 후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됨을 말하고, ‘어 있’은 동작의 상태가 그대로 이어짐을 나타낸다. 또한 ‘고 있’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에 쓰이고, ‘어 있’은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에 쓰인다. 이때 “너 뭘 하고 있니? / 엄마는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등과 같이 단순한 동작의 진행을 나타

낸다. 또한 사건이나 습관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29)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빵을 먹고 있었어요.

② 자동사

- (30) a. 他們正談着話呢。
 b. 그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b' 그들은 지금 이야기하어 있다.
- (31) a. 你等着吧。
 b. 너 기다리고 있어라.
 *b' 너 기다리어 있어라.

예(30)(31)에서 ‘着’의 선행성분이 자동사일 경우 ‘고 있’으로 표현되며, ‘어 있’으로 표현 될 경우 비문이 된다. 아래의 예와 같이 중국어에서 자동사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두 개의 동사가 함께 나타나는 연동문의 형식을 많이 쓴다.

- (32) 他笑着說話。(그는 웃으면서 말한다.)
 (33) 媽媽哭着說。(어머니는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34) 領着孩子朝外走。(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간다.)
 (35) 想着想着笑了起來。(생각하다가 웃기 시작했다.)

예(32)(33)는 앞에 오는 동사 뒤에는 ‘着’를 쓰고 ‘一邊.....一邊’으로 바꿔 쓸 수도 있으며 動1이 動2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한국어에서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서’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사는 飛(날다), 流(흐르다), 笑(웃다), 降(내리다), 動(움직이다), 回(돌다), 震動(흔들리다. 진동하다), 喊(고함치다) 등이 있다. 예(34)은 動1과 動2는 일종의 수단과 목적 관계가 있고, 사동의 어미 ‘리’ 등

으로 대응된다. 예(35)는 動1의 진행 중에 動2의 동작이 나타내며, 동작행위가 반복적이고 끊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때 한국어 ‘다가’와 대응된다.

‘着’와 ‘고 있/어 있’은 동사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서로 비슷하게 대응되었다.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순간동사, 심리동사, 행위동사 뒤에는 [상태의 지속]의 ‘어 있’과는 대응되지 않았고, 타동사, 자동사는 ‘고 있’과는 대응되지만, ‘어 있’과는 대응되지 않았다. 또한 자동사는 사동의 어미 ‘리’와 ‘면서/다가’ 등 여러 가지 연결 어미로 대응되기도 했다.

2. 선행성분이 형용사인 경우

‘教室的燈還亮着.....(교실안의 등이 켜져 있고.....)’와 같이 형용사 뒤에 ‘着’가 와도 지속의 상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형용사+着’의 형식만으로 술어는 될 수 없다. 이러한 구문은 아래와 같이 비교하는 문이나 복문 중에서 많이 나타난다.

(36) 南屋的燈亮着, 北屋的燈關了。

(남쪽 방이 켜져 있고, 북쪽 방이 꺼져 있다.)

(37) 教室裏的燈亮着, 他正在燈下學習。

(교실안의 등이 켜져 있고, 그는 등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다.)

형용사 뒤에 ‘着’가 나오는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한국어와도 ‘고 있/어 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로 대응된다. ‘着’의 형식과 대응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형+着+呢’ 형식이다. 형용사가 가지는 의미의 정도가 높음을 표시하며,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과장의 의미도 있다. 그 목적은 청자에게 믿음을 주는데 있고 일반적으로 회화체에 많이 쓰인다. 아래 예와 같이 한국어에서 평서문 종결형어미로 표현된다.

(38) 今天的作業難着呢。(오늘 숙제는 어렵습니다.)

(39) 這個人壞着呢。(이 사람은 나쁩니다.)

(2) ‘형+着+수량사’ 형식이다. 이 형식은 대부분 상태를 나타내고, 정도가 많고 깊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두 사물의 가치를 표현하고, 서로 비교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어에서 평서문 종결어미로 표현된다.

(40) 我比你大着兩歲。(나는 당신보다 두 살 더 많습니다.)

(41) 您的棋比我高着一步。(바둑이 저보다 더 한 수 위입니다.)

(3) ‘형/동+着+點兒’ 형식이다.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이며, 어떤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이 한국어로 대응되면 평서형으로 표현되고 상(相)적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명령문과 청유문은 상(相)적 활용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42) 過馬路看着點兒。(길 건널 때 조심하세요.)

(43) 慢着點兒，別摔了。(좀 천천히, 넘어지지 않도록)

(4) ‘着+형용사’ 형식이다. 이 형식은 형용사가 ‘着’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着’ 뒤에 오는 후행성분으로 ‘着’의 선행성분이 되는 것과는 다르며,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완료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이때 한국어에서 대부분 ‘면’으로 대응된다.

(44) 我坐着不舒服，站着舒服。

(나는 앉아 있으면 불편하고 서 있으면 편하다.)

(45) 這衣服看着漂亮，穿着不舒服。

(이 옷은 보기에는 예쁜데 입으면 불편하다.)

이와 같이 ‘着’와 형용사 쓰임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며, 한국어

의 대응 또한 연결어미 ‘면/면서/다가’, 평서형 종결어미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3. ‘着’의 한국어 표현 교육

시간의 흐름위에서 어떤 사건이나 혹은 완료, 미완료에 관계없이 시간적인 폭을 지니게 되는데 그 폭의 “시작과 끝”의 연결을 가지고 동작의 진행상과 완료상을 말 할 수 있다. 진행상은 사건이 동작의 전개 국면으로 들어가거나 그 속에 머물러 있음을 표시하고, 완료상은 사건이 동작의 전 국면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진행상 ‘正在, 着’는 한국어 ‘고 있’으로 표현되고, 지속상 ‘着’는 ‘어 있’으로 표현됨을 알았다.

(46) a. 他輕輕地鼓着, 生怕驚醒了孩子。

b. 그는 아이가 놀라서 깰까봐 가볍게 두드리고 있다.

*b' 그는 아이가 놀라서 깰까봐 가볍게 두드리어 있다.

예(46)b'에서 ‘어 있’을 사용하여 비문이 되었다. ‘着’가 상태지속의 의미가 있다고 모두 ‘어 있’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규칙에 따른 ‘과잉일반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¹²⁾ 모국어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보면 이런 현상은 부정적인 전이인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언어적 인식에 있어서 같은 syntax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표현 하는 상(相)적 양상 또한 다르다. ‘고 있’은 동작이나 상태변화의 목적에 대하여 ‘미완료’의 지속을 나타내며, ‘어 있’은 동작이나 상태변화의 목적에 대하여 ‘완료’의 지속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할

12) ‘과잉일반화(over generalization) 현상’이란 L1, L2 습득에서 언어학습자가 목표어에 적용되지 않는 문법원칙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나타내는 과정을 말한다.(R. Ellis, 1998:426), 《외국어습득론》(김윤경 옮김), 한국문화사.

때 어떤 일에 대해 의견을 내며,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나타낸다. 또한 동작의 사건을 진행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서술한다. 이것은 모두 언어를 표현하는 기능문제에 속한다. 문장에서 그 기능과 구조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동작이나 사건의 진행을 서술할 때 언제나 동작진행의 단계를 밝혀야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태조사 ‘着’는 ‘고 있/ 어 있’으로 대응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연결어미로도 표현되었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그 용법이 다양하고 어렵다. 연결어미 학습에 있어 그 연결어미가 가지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제 선어말제약, 주어일치제약, 선행용언제약, 문장형태제약” 등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도 함께 학습해야 한다.

중국어는 동사의 기본형은 바뀌지 않고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어기조사와 시간명사, 시간부사 등이 한 문장에서 어울려져 시간을 나타내지만 한국어는 시간명사, 시간부사는 시간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기 위해 쓰일 뿐이므로 상(相)적인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를 상세히 가르쳐야 한다. 즉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상(相)적 표현에 있어서도 동사나 형용사의 다양한 어미변화로 나타내지만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많은 부분에서 동작 상태와 시간사로 표현된다. 또한 사건과 시간을 인식하는 데에 서양인들과 비교하면 중국인과 한국인의 있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사람이 사건과 시간을 대하는 데는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주목하는 경우와 사건의 길이, 상태 등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구인은 주로 외부에서 사건 전체가 발생한 시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인과 한국인은 사건내부 각 단계의 상황에 주목하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다. 비록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시간을 인식하는 데는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相)적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학습자는 보조동사, 연결어미 등의 용법을 먼저 상세히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중국어에서 상(相)적 의미를 가지는 동태조사 ‘着’와 한국어 연결어미와 보조동사로 결합된 ‘고 있/ 어 있’을 중심으로 한국어 표현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어 동태조사 ‘着’와 한국어 ‘고 있/ 어 있’의 각각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둘째, ‘着’의 [동작의 지속]과 [상태의 지속]의 두 가지 의미특성에 따른 한국어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着/正在’는 ‘고 있’과 대응되었으며,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着’는 ‘어 있’과 대응되었다. 모국어의 전이(transfer)와의 상관관계를 대조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서로 비슷하게 대응되어 긍정적인 전이인 ‘유용’에 속해 중국어 모어 한국어 학습자가 좀 더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 셋째, ‘着’의 선행성분에 따른 특성과 한국어 표현을 살펴보니, ‘着’의 선행성분이 동사 혹은 형용사에 따라 한국어는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다. 먼저 선행성분이 동사인 경우 중국어에서 순간동사, 심리동사, 행위동사는 한국어 대응에서 대부분 ‘고 있’으로 표현되었다. 타동사와 자동사에서도 ‘고 있’ 과는 대응되지만, ‘어 있’과는 대응되지 않았다. 또한 자동사 단독으로 쓰일 때와는 다르게 연동문이 되면 사동 어미 ‘리’와 ‘면서/다가’ 등 여러 가지 연결 어미로 대응되어 표현되기도 하였다. 선행성분이 형용사인 경우 ‘着’는 ‘고 있/ 어 있’으로 대응되지 않고 평서형 종결어미, 연결 어미 ‘면/면서’ 등으로 대응되었다. 이는 부정적인 전이인 ‘간섭’으로 학습자는 동사나 형용사의 각각 특징과 쓰임 등을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고 있’의 중요한 기능은 진행이고, ‘어 있’의 기능은 완료이며 나머지 기능은 동작류에 따른 기능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언어유형에 관한 Levy Bruhl식 가치관에 의하면 진화가 덜 된 언어일수록 상(相)적 체계가 보이고, 진화된 언어일수록 시제적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고 했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상(相)적 요소가 강한 언어이다. 이를 언어의 진화여부에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언어는 그 언어가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가 고립어로서 형태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라고 해서 형태가 결핍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언어 현상을 인구의 특성에 따라 분석했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각각의 언어 현상과 특성에 따라 분석하고 대조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보정판, 태학사), 2007.
 고영근/남기심,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서울: 탑출판사), 1998.
 김종도, <우리말의 상 연구>, 《한글》219, 1993.
 김차균, 《우리말의 시제와 상의 연구》, 태학사, 1993.
 김충실, 《중한문법대조연구》(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남기심, 《국어 문법의 시제 문제에 관한 연구》(서울: 탑출판사), 1978.
 박덕유,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한국문화사), 2006.
 백봉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사전》(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서정수, 《국어문법》(수정판, 한세본 출판사), 2006.
 이남순, 《시제, 상, 서법》(월인 출판사), 1998.
 볼프강 클라인, 신수송 역, 《언어와 시간》(역락 출판사), 2001.
 Bernard Comrie, 이철수/박덕유 역, 《동사 상의 이해》(한신 문화사), 1988.
 陳平, <論現代漢語時間系統的三元結構>, 《中國語文》第6期, 1998.
 龔千炎, 《漢語的時相·時制·時態》(商務印書館), 1995.
 戴耀晶, 《現代漢語時體系統研究》(浙江教育出版社), 1997.
 房玉清, 《使用漢語語法》(修訂本, 北京大學出版社), 2003.
 胡裕樹, 《現代漢語》(重訂本, 上海教育出版社), 1998.
 賈秀英, 《漢法語言對比研究與應用》,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 馬慶株, <時量賓語和動詞的類>, 《中國語文》第2期, 1981.
- 劉月華, 《使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商務印書館), 2001.
- 陸儉明, 《“着(zhe)”字補議》, 《中國語文》第5期, 1999.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商務印書館), 1984.
- 孫朝奮, <再論助詞“着”的用法及其來源>, 《中國語文》第2期, 1997.
- 王力, 《中國語法理論》(中華書局), 1945.
- 朱德熙, 《語法講義》(商務印書館), 1982.
- 趙元任, 《趙元任全集》(第1卷, 商務印書館), 2002.
- Levy Bruhl, L. (1910) Les Fonctions mentales dans les sociétés inférieures. 영어번역판 How Natives Think 1920년 발행
- Traugott, Elizabeth Closs (1972). The history of English Syntax,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中文提要 >

本文對漢語動態助詞‘着’與韓語的‘고 있/어 있’進行了對比研究。我們首先分別考察了漢語動態助詞‘着’和韓語‘고 있/어 있’的用法和特點，然後考察了‘着’裏的動態持續和狀態持續兩個意思在韓語裏面的表達方法。據我們考察，表示動態持續的‘着／正在’與‘고 있’對應，表示狀態持續的‘着’與‘어 있’對應。在這兒兩種語言的表達方法對應的情況比較簡單，可以互相轉換，給以漢語為母語的韓語學習者帶來積極影響。

本文還研究了‘着’前面的成分對韓語表達方式的影響。結果顯示‘着’前面的成分是動詞的時候，例如：瞬間動詞，心理動詞，行為動詞在韓語裏大部分表現為‘고 있’。但和單個動詞做謂語時不同，在兼語句裏‘着’經常與韓語的‘리’和‘면서/다가’等多種連接語尾對應。‘着’前面的成分是形容詞的時候，‘着’不與‘고 있/어 있’對應，而與陳述型終結語尾和連接語尾‘면/면서’等對應。在這兒兩種語言的表達方法對應的情況比較複雜，很難找到一條簡單的對應規則，可能引

起負面轉移, 韓語學習者應該注意有關情況。我們可以這樣說, ‘고 있’的主要功能在於表現進行狀態, ‘어 있’的主要功能在於表現完成狀態, 其他的功能是根據動作類別對其功能進行轉變。

Levy Bruhl認為, 不發達的語言‘體’體系比較完善, 發達的語言‘時制’體系比較完善。漢語和韓語都是屬於‘體’的表達較完善的語言。Levy Bruhl的結論顯然是一種偏見, 因為所有的語言幾乎都有自己的特點。漢語是孤立語, 有的人認為漢語不發達的語言。這種說法也是通過與印歐語的比較顯現出來的, 有無形態或‘體’表達的完善與否, 都是漢語本身的特點。韓語和漢語的對比應該着眼於兩種語言本身的特點來進行研究。

주제어 : 着, ‘고 있/ 어 있’, 體(aspect), 動態持續, 狀態持續